

오미크론 대응 긴급방역회의

전주시, 김승수 시장 주재 개최... 고위험군 관리·치료 중심 대응체계 구축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역에서 명절 연휴 이후 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발생함에 따라 7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방역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역에서는 휴일인 6일 총 69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확진자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시는 이날 개편된 정부 방역·의료체계에 맞춰 실질적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및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역학조사에 '자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간소화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과 수령 등 필수 목적의 외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의료체계 개편으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격리 세대에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된다. 시는 그간 전체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의 집중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만 키트를 지급하고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관리군 환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의약품은 배송을 통해 공동격리자가 수령하는 등 집에서도 불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시는 향후에도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해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방역·의료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로 인해 버스운행, 쓰레기 처리, 제설작업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해 안전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의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책의 도시 전주' 도서관 시민 홍보단 모집

시,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대상 SNS·유튜브 분야

책의 도시 조성을 선포한 전주시가 이웃들에게 도서관을 알리는 시민 홍보단을 운영한다.

시는 SNS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도서관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서관 시민 홍보단에 참여할 만 18세 이상 시민 1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도서관 시민 홍보단은 크게 SNS 분야와 유튜브 분야로 나뉘어 모집된다.

SNS 분야는 블로그를 필수로 포함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채널 3개 이상의 계정을 운

영하면서 매일 2회 이상 도서관 관련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면 응모할 수 있다.

유튜브 분야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매일 1회 이상 도서관 관련 영상을 촬영 및 편집·제작해 업로드가 가능해야 한다.

시민 홍보단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매일 SNS 또는 유튜브를 통해 전주시 도서관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 홍보단에게는 매일 활동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활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 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달 중 세부 일정과 활

동 방법을 안내하고, 감사 초청 강연 등을 포함한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관계자는 "시민에게 도서관 운영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SNS 채널 및 유튜브를 통해 도서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책의도시운영과(063-230-186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노인돌봄 안전망 구축 위한 2차 심화조사 실시

75세 이상 노인 5963명 대상

전주시가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발굴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체계적이고 촘촘한 노인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 중 심화 평가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 가구구성(독거노인·노인부부)과 노쇠도, 우울증, 인지점수가 높은 59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2차 심화 조사에는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으로 꾸러지는 시니어 설문조사 전문사업단이 조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의료적 문제(만성질환, 인지, 정신건강 등) △돌봄 문제(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안전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조사원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해당 가구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각종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 방향성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5개 동 1299명의 통장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거 등 실거주 현황 △노쇠(질병 개수) △우울·인지장애 등 생활실



전주시는 올해 체계적이고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 중 심화 평가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조사원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태와 기본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장은경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전주시 어르신들의 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설문

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어르신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확대 추진

해피하우스 주택 점검·보수 지원 품목 확대·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 지원 강화

전주시가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집을 수리해주는 해피하우스 지원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점검·보수 및 시민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주택 점검·보수 지원 품목을 기존 32개에서 △전기안전기 △세탁기호수 △도어체크 수리 등 3개 품목을 추가한 35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대규모 수선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시 소규모 시설물·부속품의 점검·수리를 함께 지원하고, 집수리 봉사단체 및 동 주민

센터 복지업무와 해피하우스 센터를 연계해 더 많은 세대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관리주체가 없어 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 총 700세대 지원을 목표로 수혜가구를 집중할 예정이다.

해피하우스 주택 점검·보수 지원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의 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전주시 35개동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인후센터(1577-2589), 노송센터(1577-6513), 완산센터(1577-6514), 팔복센터(211-7740) 중 가까운 센터로 소득 및 자격증빙 서류를 지참

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사업과 더불어 △마을개선 희망사업 △시민들이 간단한 보수는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집수리교육 △무로 공구대여 사업 △공공건축가의 무료 건축 상담 등 다른 해피하우스 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노송·완산·인후·팔복센터 등 4개 권역센터를 통해 총 3664세대, 1만4903건의 주택 내 시설물·부속품의 점검보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배회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택성능을 향상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독서학교 강사 7명 모집

전주시가 전주시민독서학교(옛 전주 시민대학)에서 올해 운영하는 7개 신규과목의 강사를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한 전주시민독서학교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삶과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립도서관 12개와 작은도서관 1개 등 13개 도서관에서 다음 달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도전! 작가되기 △시대를 읽는 과학 △영어 그래픽 스토리텔링 △중등철학논술지도 △초등독서논술지도 △명화 세계 문화사 △화페 속 경제학 등 독서 및 인문교양 등 총 7개 과목이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당 분야 강의 경력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 관련 연구 및 전문성을 인정

할만한 서류를 구비한 사람 등으로 온라인 수업 역량이 있는 자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강사지원서 등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전주시립도서관 3층 책읽는도시팀(완산구 백제대로 306)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jsh1016@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친 뒤 오는 2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